

↓ 코스피 2864.24 (-25.86)	↓ 코스닥 943.94 (-13.96)
↓ 금리 (연복리 3년) 2.127 (-0.021)	↓ 환율 (원·달러) 1190.10 (-2.60) (18일)



한화손해보험 com  
사고 저렴한 자동차보험  
1899-9682

# 빨라지는 전기차 시장...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충 '열일'

## 후업계, 총성없는 친환경 전쟁

LG화학, 양극재 생산공장 추가건설  
SK, 음극재 전지박·분리막사업 확대  
삼성SDI, 양극재 생산업체와 합작  
포스코,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

국내 주요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에 맞춰 배터리 소재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화학업체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배터리 소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호주와 유럽 등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기세를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유럽에서는 전지차가 디젤차 판매량을 앞섰으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가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 전해액·분리막) 중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 생산을

강화한다.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에 달한다. 기존 청주·익산·중국 우시에 이어 경북 구미에 연간 6만톤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LG화학의 구미 공장은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500km 주행 가능) 약 50만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 착공한 구미 공장은 LG화학이 집중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 전용 라인으로 구축된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증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화학이 생산하는 양극재를 전량 소화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을 400GWh(전지차 배터리 용량 70KWh 환산 시 571만대 규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설립한 SK는 음극재 전지박(SK C)과 분리막(SK아이이테크놀로지)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SKC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 5만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폴란드에 추가 생

산기지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분리막 1공장 준공에 들어가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SK는 기존 흑연 음극재에서 안정성을 더 높은 실리콘 음극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SK머티리얼스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에 총 85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자회사 에스티엠(STM)에 양극재 제조 설비 등을 양도, 제조·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또 양극재 생산증설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으며, 재작년에는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합작사(에코프로이엠) 설립에 나선 바 있다. 에코프로이엠은 올 상반기부터 경북 포항에서 본격적인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생산에 나선다.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있지만 리튬, 니켈, 흑연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우위 능력을 강점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케미칼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2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약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23개 선사 15년간 '짬짜미' 운임담합 거부땐 왕따시켜

### 공정위, 962억 과징금 부과

국내외 23개 선사가 15년간 해상 운임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담합에서 이탈하는 선사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하려 했고, 인상된 운임을 거부한 화주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선적을 거부하는 행태도 보였다.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 여부에 대해서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 ~ 2018년 12월까지 약 15년 간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담합에 가담한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국적선사 12개사와 대만·싱가포르·홍콩 외국적 선사 11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운임인상 방식 중 운임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식인 'RR 방식'보다는 최저운임을 결정하는 'AMR 방식'과 부대운임 도입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합의대상으로 선택

했다.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이외 국적선사와 외국적 선사들이 차례로 담합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대외적으로 선사들 간의 합의 해 운임을 결정하지 않거나 개별 선사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고, 담합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천 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 또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물량 이동 제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 LG엔솔 청약 첫날, 증거금 32조 '역대급'

미래에셋증권 경쟁률 95.86대 1 '최고' 균등배정 청약자 1주도 못 받을 수도



LG에너지솔루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에서 고객들이 투자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에 달하는 주문액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청약 열기는 역시나 뜨거웠다.

일반인 청약 첫날인 18일에만 32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다. 특히 벌써 균등배정을 통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증권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일반 청약을 받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에 청약 증거금이 대거 몰렸다.

이날 청약 건수는 약 237만3900개에 이른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KB증권에는 약 130만건이 넘는 계좌가 몰렸다.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각각 41만5000건, 29만2300건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약 26만8600건), 하나금융투자(약 5만4000건), 신영증권(약 2만7400건), 하이투자증권(약 2만4700건)이 뒤를

이였다. 이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경쟁률은 95.86이며 이미 청약건수가 균등배정물량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에 이날 배정된 수량인 22만 1354주(균등배정 물량 11만677주)를 넘어 13만건의 계좌가 몰렸다. 계좌당 균등배정 주식수는 0.7주로 균등배정을 노린 청약자들은 1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의 경쟁률은

25.24대 1이다. 청약건수는 129만9764건이고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량은 1.87주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대신증권의 9.87대 1이다. 청약건수는 29만2370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4.16주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쟁률은 15.87대 1이다. 청약건수는 41만5500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2.97주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문대통령 "천궁-II UAE 수출, 소중 한 우정의 결실"
- ▲ 이재명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격차 개선"... 이대내 공략 /사진 뉴시스

- ▲ 윤석열, '김건희 미투 언급' 사과 요구에 "더 드릴 말씀 없다"
- ▲ 국방부, 잇단 북 미사일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



- ▲ 안철수 "양자 TV토론 불공정... 법적 조치 취할 것" /사진 뉴시스
- ▲ 강경화, 20일 ILO 사무총장 후보 공개청문회... 제네바로 출국